

동굴의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

A Study on the Value as Tourist - resource of Cave

유영준⁴⁾

국문 초록

현대인들은 다양한 관광과 여가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말이면 각 고속도로의 톨게이트는 상·하행선이 번갈아 복잡해지는 현실에 처해 있다. 또한 관광의 개념도 바뀌어져 새로운 복합적 관광자원을 관광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런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관광자원인 동굴의 가치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결과 동굴은 자연 관광자원과 인문 관광자원으로서의 특징을 모두 갖춘 복합적 경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합 관광자원'으로서의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동굴의 특징은 예술성(지하 경관의 신비성), 종교성(원시종교의 유적성), 유용성(동굴 탐험장·핵 폐기물 처리장), 학문성(지구과학·동굴학·관광학)으로 요약할 수 있다.

I. 서론

요즈음 고속도로의 톨게이트는 현대인들의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 확대로 말미암아 토요일에는 밖으로 나가는 톨게이트, 일요일에는 돌아오는 톨게이트가 매우 혼잡하다는 뉴스를 매주 방송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다.

이렇게 현대인에게 있어 레저 생활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레저 및 관광관련회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현대인들은 관광을 행하기에 앞서 관광자원으로서의 특성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복합적 자원을 그 대상으로 선택하고 있다.

이런 복합적 기능을 가진 여러 관광자원 중에서도 동굴은 지하에 분포하

* 日本 明海大學校 客員研究員

고 있기 때문에 특이하며, 여름에는 긴 팔 상의를 입고 들어가야 할 정도로 냉방이 잘 되고, 반대로 겨울에는 밖의 기온보다 따뜻하여 계절의 영향을 덜 받아서 일반 관광자원보다 사람들에게 관심이 높고 견인력이 큰 자원이다. 이런 특징을 지닌 동굴이 최근 들어 레크리에이션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광과 관광자원의 정의를 재정립하여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동굴이 지니고 있는 복합적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관광자원의 정의 및 종류

1. 관광의 정의 및 특성

1) 관광의 정의

지금까지 동양에서 觀光은 다른 것에 비해 아름답고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을 통털어서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런 관광은 사람들이 짧은 기간 동안 이동함을 의미하는 ‘tour’에서 파생된 말이다. 점차 우리들 생활에서 중요해지고 있는 관광의 어원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국어사전에서는 관광을 “保養, 유람 등의 오락적 목적으로 여행하는 것 또는 즐거움을 위한 여행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근(1996)은 “관광이란 인간의 일시적 이동에 의한 의식의 승화와 자기확대를 위하여 행해지는 일련의 레저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병문(1986)과 한주성(1992)은 “관광의 정의는 아름다운 풍경과 자연, 훌륭한 예술품이나 건축물, 진귀한 행사, 성지순례, 명승고적이거나 문화재 및 기념물 등을 찾거나 휴양을 위해 온천이나 피서지를 찾는 경우, 스키, 등산, 낚시 등을 하기 위해 다른 지방이나 국가로 여행하는 것을 총괄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광은 관광자원의 개발에 의해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관광 가치를 가져 관광산업을 발달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2) 관광의 특성

관광의 특성은 그 주체와 대상이 있다는 것이다. ‘관광 주체’는 관광욕구의 주인으로서 관광객 또는 관광욕구라 한다. 이것은 관광의 구성 요소 중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관광행동과 관광현상이 나타나게 하는 주체이다. ‘관광 대상’은 관광 주체의 행동 목적이 되는 관광자원과 스포츠 레저 등을 의미하고 이를 ‘관광 객체’라고도 한다. 또한 ‘관광매체’란 관광객의 관광 대상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결합시켜 주는 결합매체이다. 여기에는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교통업, 체재를 위한 숙박업, 정보를 신속하게 하는 안내업 등이 있는데, 이러한 관광매체에는 공간적 매체로서의 교통업과 도로시설, 시간적 매체로서의 숙박업과 휴게시설, 기능적 매체로서의 안내업과 관광여행업·토산품 판매업, 정책적 매체로서의 제도적 지원 등이 있다.

현대의 관광현상은 주체, 대상, 매체 어느 쪽이 결여되어 있어도 관광행동은 어렵게 된다(그림 1 참조). 특히 매체의 기능은 관광의 정책기능과도 연계되어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인 개발 내지 사업 추진자로도 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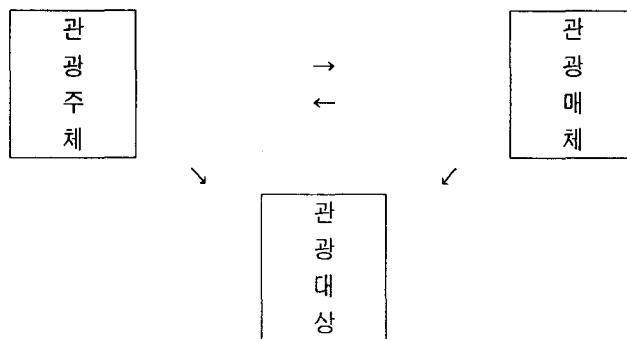


그림 1 관광 구성 요소의 관계

2. 관광자원의 정의 및 종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광 대상’이란 관광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목적이 되는 것이다. 또한 관광 대상인 관광자원은 관광지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로서 관광객의 관광 욕구를 제지리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지금까지 관광지리학 분야의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1) 관광자원의 정의

관광의 대상이 되는 관광자원에 대한 정의는 여러 사람들이 이미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인간의 관광동기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생태계내의 유형·무형의 제자원으로서, 보존·보호하지 않으면 가치를 상실하거나 감소할 성질을 내포하고 있는 자원이다(이장춘, 1983).

② 관광자원이란 관광의 주체인 관광객이 그 관광동기 내지 관광의지의 목적물로 삼는 대상물이다(津田昇, 1969).

③ 관광자원이란 인간의 관광욕구와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연적·인문적 대상의 총체로서, 매력성과 자력성을 지닌 소재적 자원을 말한다(이근, 1996).

이외에 더 많은 언급들이 있었으나, 관광자원의 정의에 사용된 표현들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관광욕구와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 ② 관광행동의 목적물이 된다.
- ③ 자연적·인문적 대상의 총체이다.
- ④ 유형·무형의 제자원을 말한다.
- ⑤ 관광자의 목적물이 되는 관광대상이다.
- ⑥ 위락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 ⑦ 매력성과 자력성을 지닌 소재적 자원이다.

- ⑧ 보존·보호가 필요한 자원이다.
- ⑨ 관광의 객체이다.
- ⑩ 관광의 대상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표현으로 관광자원을 정의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관광자원은 관광자의 목적물인 관광대상이 되는 위락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자연적·인문적 대상을 총칭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한다.

2) 관광자원의 종류

관광자원의 종류는 참으로 다종다양하며 그 범위는 무한히 확대되고 있다. 여가·레저문화의 확산은 현대인으로 하여금 변화 욕구의 지향성에 따라 새로운 매력을 갖춘 관광대상으로서 관광자원을 찾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인의 변화 욕구에 충족에 도움이 되고 위락적·교육적 가치를 지닌 것이 라면 모두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특히 현대는 대중관광 또는 국민관광의 시대로 돌입하게 됨에 따라 관광 자원의 범위와 특성도 스포츠·레저 행동과 시설 쪽으로 다양하게 변모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관광자원의 종류 역시 정의와 마찬가지로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음과 같이 언급되고 있다.

津田昇(1969)은 자연적 관광자원(지형·지질·천문기상·동식물), 문화적 관광자원(문화재·박물관), 사회적 관광자원(민족성·풍속·행사·스포츠·인정·藝道·문화시설·사회시설 등), 산업적 관광자원(공업·상업·농업생산품·기술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김병문(1986)과 이장춘(1983)은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으로 구분하고, 자연자원에는 관상적 관광자원과 보양적 관광자원(기상·온천·등산·해수욕)을, 인문자원에는 문화적 관광자원과 사회적 관광자원 및 산업적 관광자원을 포함시키고 있다.

동굴의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

이근(1996)은 자연적 자원과 인문적 자원으로 구분한 후, 자연적 자원에는 지형·지질자원(산악·해안·화산·河谷·호소·온천·동굴), 천문·기상자원(태양·月星·雲雨·공기), 동·식물자원(조수·어류·삼림·화초)를, 인문적 자원에는 문화적 자원(문화재·박물관), 사회적 자원(민족성·풍속·신앙·행사·스포츠·인정·문화·교육·사회시설), 산업적 자원(공업·상업·농업·산업시설), 복합적 자원(향토경관·농어촌경관·전원경관·역사경관·도시경관)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의 관광자원은 국토의 전 지역에 걸쳐서 산자수명한 자연경관과 그 사이사이를 굽이굽이 돌며 이룩해 놓은 우아하고 정겨운 민족의 문화유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산악의 규모 면에 있어서는 서구적인 거대성을 따르지는 못하지만, 그 정감어린 산하의 수려함과 지극히 독창적이며 정교한 우리 문화재들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하여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광의 대상이 되는 관광자원을 자연 관광자원, 인문 관광자원, 복합 관광자원으로 구분한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자연자원을 자연적 자원으로 구분하여 모든 자연이 관광자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간은 자연에 대한 귀소본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자연이 관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자연 관광자원’이라 한다. 또한 인문자원 역시 인문적 자원이라고 하여 모든 인문경관이 관광자원이 될 수 없다고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간에 의해 형성된 상품 하나라도 관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인문 관광자원’이라고 한다. ‘복합 관광자원’이란 인문경관이라고 구분하기는 다소 애매한 향토경관과 같이 자연적 특징과 인문적 특징이 적절히 조화된 경관자원을 지칭한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연 관광자원은 지형·지질(광물 포함), 천문·기상, 생물 등으로 세분하고, 인문 관광자원은 문화재(유·무형·문화시설), 사회(사회 형태·생활 형태), 산업적 자원으로 세분하며, 복합 관광자원은 향토 경관, 도시 경관, 동굴 경관으로 구분한다.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관광자원의 분류

자연 관광 자원	지형·지질(광물 포함) 천문·기상 생물(동·식물)
인문 관광 자원	문화재(유형·무형), 문화 시설 사회(사회 형태·생활 형태) 산업적 자원
복합 관광 자원	향토 경관 도시 경관 동굴 경관

III. 관광자원으로서 동굴의 특성

1. 동굴의 종류 및 특성

1) 동굴의 종류

동굴은 그 생성의 원인이나 형성과정, 그리고 그 형태에 따라 달리 분류된다. 즉 자연굴과 인공굴로 대별되기도 하고 종유굴, 용암굴 및 파식굴과 절리굴 등으로 세분되기도 한다. 물론 그 형태에 따라 수평굴과 수직굴로 구분될 수도 있다.

먼저 '종유굴'은 석회동굴이라고도 하며 주로 석회암지역에 널리 분포된다. 우리 나라에는 전국에 약 1천여 개소의 동굴이 있다고 하나 그 근거가 매우 애매하다.

이 종유굴은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 석회암을 용해시켜 이루어지는 동굴로 천태만상의 종유석(Stalactite)과 석순(Stalagmite), 그리고 석주(Column)들의 장관이 지하궁전의 신비경을 이룬다.

동굴의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

한편 ‘용암굴’은 화산이 분출할 때, 외측은 냉각하여 굳어지나 용암이 흘러가 버린 내부는 이른바 空洞을 이루어 마치 사람의 창자 내부와 같은 지형을 이룬다.

그리고 ‘파식굴’에는 해식동굴과 하식동굴로 구분되는데, 그 대부분이 해안의 해수, 파도의 파식작용으로 이루어진 파식굴이다. 이 밖에도 절리면을 따라 水蝕作用으로 岩盤이 削剝되어 이 절리면이 커져 암굴로 되는 ‘절리굴’이 있다. 실제로 절리굴은 그 대부분이 화강암의 절리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고생대에 속하는 규암층에 생긴 이른바 逆斷層에 의한 破碎帶로 생긴 角礫岩이 地下水流로 流出 削剝되어 그 곳에 암굴이 발달되는 것이다.

그 밖에 ‘인공굴’은 인간의 어떤 목적 수행을 위한 施工洞窟로 주로 군사적인 목적과 산업적인 목적에 의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다.

요컨대 동굴은 그 성인에 따라 이상과 같이 구별되고 있는데 전술한 ‘종유굴’의 대표적인 예는 울진의 성류굴, 영월의 고씨굴, 정선의 화암굴, 삼척의 초당굴, 환선굴, 관음굴, 단양의 영춘남굴 등이라 할 수 있고 ‘용암굴’로는 제주도의 빌레못 동굴, 만장굴, 김녕사굴 등이 있으며, ‘파식굴’로는 梧桐島의 해식굴을 비롯한 남해안의 해변동굴들이 이에 속한다.

그 밖에도 ‘절리굴’로는 마니산의 화암약수굴, 충북미원의 청석다리굴 등 그리고 산정 부근에 분포되고 있는 암굴들 중에서 많이 볼 수 있다.

2) 동굴의 특성

우리나라 동굴 중 석회동굴과 용암동굴은 대체로 그 생성 연대가 각각 비슷하다. 즉 석회동굴인 강원도 삼척군의 초당굴, 환선굴, 관음굴, 연지굴 등과 영월군의 고씨굴과 동점굴, 정선군의 비룡굴과 화암굴, 충북 단양의 고수굴과 노동굴, 천동굴, 경상북도 문경의 관산굴 등은 그 대부분이 고생대 대석회암통에 속하는 지질층에 발달하고 있어 대체로 구조 지질의 생성 연대는 약 4~5억년 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회동굴의 대부분은 종유석과 석순 등의 지형경관이 풍부하며 그 동굴의 형성 연대는 대략 10만년 전후로 추정되고 있다. 비교적 동굴지형이 풍부하게 발달하고 있어 각종 미지형의 모식장, 전시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들 동굴이 하천 하상의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동굴에서는 그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살아 왔었다는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이 동굴들이 선사주거지나 종교신앙의 성소로서, 그리고 피신처로 이용되어 왔다고 추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동굴 속에 존재하는 박쥐똥(夜明沙)은 종유석과 함께 옛부터 한방약재로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어 오고 있음이 확실하다.

한편 용암굴은 우리 나라에 약 100 개소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바 그 중 제주도에만 70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제주도의 만장굴, 빌레못 동굴, 김녕사굴, 臥屹窟, 황금굴, 구린굴, 소천굴, 미천굴 등을 비롯하여, 북한지역의 개마고원, 황해도의 곡산지역, 강원도의 철원 등지에도 주로 분포하고 있다.

특히 만장굴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전장 7km의 용암굴로 이름나 있다. 종유석과 석순이 발달되지 않은 것이 특징이나, 지표를 덮고 있는 해안사빈의 貝砂가 지표수에 용해되어 용암굴 속의 천정에 약한 유사종유석을 발달시키는 경우가 있다. 협재굴은 이의 좋은 예이다.

또한 우리 나라 제주도의 굴 입구는 외국에서와 같이 가스 폭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천정이 매몰되어 굴 입구가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좁고 길다란 것이 특색이어서 세계적으로 길다란 용암굴의 발달을 보았으나 그 실제 내부경관은 매우 단조로우며 볼 만한 것이 없다.

그리고 제주도의 용암굴은 그 대부분이 서북쪽의 협재리 서남쪽과 동북쪽 金寧 부근에 집중 산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도 동굴의 넓이 특히 동굴의 크기가 넓어짐에 따라 落盤現象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동굴이 많은 점과 깊은 수직굴이 많아서 진동굴성 생물이

많다는 점도 특기할만한 사실이다.

2. 관광자원으로서의 동굴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굴을 자연관광자원 중 지형자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것은 동굴의 성격 중 가장 대표적인 지형적인 면만을 관찰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동굴은 앞에서 언급한 지형·지질작용과 관계가 깊은 자원이지만 지하의 신비적 경관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그 구조의 특성에 따라 산업적·군사적 또는 학술적 연구의 이용에 크게 기여하는 등 다기능적 복합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동굴을 ‘복합 관광자원’으로 구분하였다.

동굴의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는 단순한 지하경관의 ‘예술성’만이 아니고, 원시인들의 생활양식이나 종교의식과 관련된 ‘종교성’, 전쟁시의 피난처, 식량의 저장 창고, 양송이 재배지, 동굴 탐험의 스포츠로서의 ‘유용성’, ‘학문적인 연구’ 이용 등 매우 방대한 복합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로 인해 나타난 핵 폐기물 처리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지형적으로 본다면 하더라도 해식동굴일 경우는 해안기암과 해식에, 해안선과 파도, 수목과 결합하여 복합성을 형성하고, 석회동굴과 화산동굴의 경우에도 산악, 하천, 계곡, 수목 등 뿐만 아니라 동굴 주위에서 바라보는 주변 경관이나 취락경관, 향토경관 등도 동굴자원의 복합성 속에 포함된다.

따라서 동굴은 자연 관광자원으로서의 특징과 인문 관광자원으로서의 특징을 모두 갖춘 복합적 경관이기 때문에 관광자원 중에서 복합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가치를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동굴의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

구 분	동 굴 의 관 광 자 원 으 로 서 의 가 치
예 술 성	지하 경관의 신비성, 색채성, 지질 형성의 경이성
종 교 성	초자연적인 신비성, 사원·窟寺의 신앙성, 원시종교의 유적성
유 용 성	동굴 탐험, 산업적 이용, 군사적 이용, 신앙의 이용, 핵 폐기물 처리장으로의 이용
학 문 성	지구과학, 동굴학, 지질학, 지형학, 생물학, 환경학, 종교학, 관광학, 지리학, 문화인류학

IV. 요약 및 결론

현대인은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여가와 관광에 대한 개념을 바꿔 놓았다. 또한, 가족 단위의 나들이 또는 가족 동반 여행이 증가하면서, 관광자원에 대한 인지도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동굴은 그 성인에 따라 화산작용에 의해 형성된 화산동굴과 석회석과 지하수의 용해로 형성된 석회동굴, 파도의 침식에 의해 형성된 해식동굴, 그리고 철도나 도로의 흐름을 원활히 시키기 위한 인공동굴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동굴들은 단순히 신비한 지하경관이 갖는 ‘예술성’ 뿐만 아니라 원시종교와 초자연적인 신비성을 갖춘 ‘종교성’, 레저 스포프로서 당당하게 자리를 갖춘 동굴 탐험 및 핵 폐기물 처리장으로서 이용될 수 있는 ‘유용성’, 지구과학 및 동굴학의 현장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문성’ 등을 고루 갖춘 복합성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동굴은 자연 관광자원으로서의 특징(동굴의 지형지물·동굴 생물의 특수성·동굴 기상)과 인문 관광자원으로서의 특징(종교성·유용성 등)을 모두 갖춘 복합적 경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관광자원 중에서 복합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 권용우·김선희, 1994, “관광자원에 대한 지리적 연구 동향,” 「대한지리학회지」, 제29권 제2호, 202~215
- 김병문, 1986, “한국 관광자원의 유형별 분포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혁, 1993, 관광마케팅론, 대왕사 : 서울.
- 김원이, 1995, 관광학원론, 학문사 : 서울.
- 김홍운, 1988, “관광지리학의 연구 동향과 과제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7집,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61~282.
- 김홍운, 1992, 완전 개정 관광 한국 지리, 형설출판사 : 서울.
- 문화공보부, 1994, 한국의 동굴.
- 신혜경, 1980, “영동지역의 관광자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리학연구」, 제5집, 372~407.
- 이장춘, 1983, 관광자원론, 대왕사 : 서울.
- 이근, 1996, 신관광자원론, 학문사 : 서울.
- 임은순, 1996, 관광조사 분석론, 형설출판사 : 서울.
- 한주성, 1996, 인간과 환경, 교학연구사 : 서울.
- 홍시환, 1978, “동굴의 이용에 관한 연구,” 「동굴」, 제2권 제3호, 17~35.
- 홍시환, 1985, “동굴 퇴적물의 환경 보전에 관한 연구 - 고수동굴을 중심으로,” 「동굴」, 제10권 제11집, 7~24.
- 홍시환, 1987, “우리 나라의 주요 관광동굴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동굴」, 제14권 제15호, 1~16.
- 홍시환, 1987, “관광동굴의 환경 변화와 보전에 관한 연구,” 동굴, 제15권 제16호, 한국동굴학회, 17~60.
- 홍시환, 1990, 한국동굴대관, 삼주출판사 : 서울.

小池洋一, 1973, “觀光開發と地理學,” 「觀光開發」, 17~22.

津田昇, 1969, 國際觀光論, 東洋經濟新聞社: 東京.